

## 2PM박재범 퇴출사건을 통해 본 군중심리



김성혜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2기)

얼마 전에 일어났던 2PM의 멤버인 박재범 퇴출사건은 지금 이 시대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 박재범이 연습생 시절에 했던 한국을 비하하는 말이 몇 년이 흐른 지금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수많은 네티즌들이 분노를 표출하여 박재범이 도마 위에 올라 삼시간에 '나쁜 놈'으로 찍히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을 직면하게 되자 2PM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서는 4일만에 형식적인 사과문을 올리고 박재범은 자진 탈퇴하여 바로 출국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그러자 상황은 극 반전 되었다.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던 네티즌들이 돌변하여 박재범에게 동정표를 던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분노의 화살은 JYP엔터테인먼트에 돌아갔다.

이번 사건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시사하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심 없이 흔들리는 군중의 모습에 집중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 생각해보았다.

하루만에 네티즌들이 생각을 바꾸고 박재범사건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중심이 없이 흔들리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사람들이 자신만의 잣대가 없고 감정이 쉽게 흔들리며 상황에 이끌리는 것이 현 시대가 직면한 문제이다. 이러한 사회의 흐름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

다. 생각대로, 감정대로의 삶을 일부 사람들과 조직이 조장하면서 이제는 너도나도 그러한 슬로건을 내걸기 시작했고 군중은 자신들의 본능과 욕구를 채워주는 가치에 몸과 마음을 내맡기게 되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중시한 것은 오히려 각자의 생각과 감정은 없어지고 군중의 생각과 감정만이 남게 되는 모순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유는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는 뚜렷한 체계와 올바른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로 공유되는 뚜렷한 가치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그 어떤 색깔도 낼 수 없는 흑백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아예 잠잠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에도 자신의 색깔 없이 흔들리는 군중의 모습이 여러 곳에 나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다(요12:13).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크게 소리 질러 여러차례 상소한 이들도 같은 유대인들이었다(마 27:22-26).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침묵하였거나 그 무리에 휩쓸려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었다.



각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중시한 것은 오히려 각자의 생각과 감정은 없어지고 군중의 생각과 감정만이 남게 되는 모순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유는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는 뚜렷한 체계와 올바른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로 공유되는 뚜렷한 가치가 없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그 어떤 색깔도 낼 수 없는 흑백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피를 자신의 자손들에게 돌린다는 저주를 스스로에게 내릴 정도로 충동적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을 잠재운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가치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곳곳이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심으로 사람들이 바른 생각과 가치를 정립할 수 있도록 어지러운 세상을 정리하실 수 있었다. 군중이 욕했던 예수님의 가치가 성립됨으로 오히려 군중은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게 되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움직여야 할 차례이다. 2000년 전처럼 침묵하거나 오히려 군중에 휩쓸려 진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굳은 의지를 가지고 바로 서서 세상에 참여해야 한다. 사도 행전 17장 6절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 여기에도 이르매'라는 말씀이 나온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진리가 바로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현 시대에 우리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되어 세상에 중심을 바로 세우고 가치를 정립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